

「金朱」「夫」「鄭」(圖 28) 「朴文」「淮夫」(圖 14) 등 多數

35 「漢山」「金山」「岩石」(光州의 옛郡名인 端石의 誤字인 것으로 思料됨)、上

(上品의 稱)、甲(甲燔의 稱)、公(公物임을 表示)、「光」(圖 24)(光州의 光

「光上」(光州 上品) 「光別」(光州 十別燔) 등

36 光(圖 20)、光上、光別、光公(圖 29 右)

37 仁(은서를 나타내는 仁義禮知信의 仁)、光仁、光公(圖 29 左) 丁閏二(圖 24)

(丁酉年閏二月의 意味로 一四七七年)、丁三別(丁酉年三月 別燔) 丁三公(圖

31) (丁酉年三月 公物)、未四(乙未年四月의 意味로 一四七五年) 丁四(圖

32) (丁酉年四月)

(國立中央博物館美術部)

* 이 論文은 서울大學校大學陸碩士論文인 「朝鮮朝 印花粉靑의 編年の考察」(一九八〇、六)을 要略한 것이다.

韓國의 佛教服飾에 關한 研究(二)

— 傳存遺物을 中心으로 —

任 榮 子

三、百濟의 法衣

백제는 僧侶의 法衣에 關계되는 遺跡이나 遺物이 傳存되는 것이 없어 당시의 자세한 상황을 살피기 어렵다.

그런데 海外에 佛法을 포교한 나라는 三國中 백제로서 제 26대 聖王 三〇년(AD 五五二)에 불교를 일본에 전했다. 이것이 日本에 불교가 전하여진 처음이다⁴³⁾.

이런 것으로 보면 백제의 一般服飾과 法衣 또한 화려하였을 것으로 보는데 一般服飾에 있어 문헌에 나타난 記錄을 보면

〈北史〉列傳 百濟條에는 『衣似袍 而袖微大』라 하였으니 여기서 백제인

들은 긴저고리를 입었음을 알 수 있고,

〔三國史記〕百濟本記 古爾王條에는

『春正月初吉 王服紫大袖袍 青錦袴』라 하였는데 靑錦袴는 통이 넓은 비단바지로 추정된다(44).

이것으로 보면 백제에도 袍衣와 같은 소매가 넓고 자락이 긴 長袴와 廣袴를 입은 의복제도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三國史記〕色服條에

『百濟其衣服 男子略同於高麗 婦人衣似袍 而袖微大』

백제의 남자의복이 고구려와 대략 같고 부인의복은 袍와 같으나 그 소매가 좀 크다 하였다. 이것으로 보면 백제가 고구려와 같이 남녀가 다 袍를 착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으로, 백제의 의복이 고구려와 거의 같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백제의 僧服을 입증할 자료는 없고 다만 조성년대를 七세기 중엽으로 추정하며 조각수법으로 보아 백제 佛像으로 추정되는(45) 민병도氏 소장 金銅僧像(圖 一一)이 전해오고 있다(46).

이 僧像은 맨몸에 條數가 없는 袈裟를 偏袒右肩으로 걸치고 있으며 袈裟 밑으로 涅槃僧(裙)이 보이는데 이 着裝法은 열대지방인 印度의 法衣를 입고 있는 모습으로 보아 백제의 승복이 아닌 승려 본인의 자세한



(圖 12) 金銅僧像(七세기중엽) (민병도소장) (韓國美術全集 佛像도판 54)

을 고려하여 조성한 것 같다.

그런데 年代가 거의 같은 八세기의 日本 興福寺 十大弟子立像 須菩提像(圖 一三)을 보면 直領交衽에 長袖이며 襖에 加飾이 없는 袍를 입고 그 위에 九條袈裟를 通肩으로 着裝하고 있는데 이 袈裟는 條葉이 다른 色인 貼相袈裟이며, 裙의 着用如否는 확실치 않다.

한편 중국 隋·唐時代의 敦煌四佛洞 第二四窟의 石像(47)을 보면, 깃도런, 소매에 襖를 둘린 袍와 條葉이 있는 袈裟를 착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차이점은 袍에 襖의 加飾에 有無와 袍안에 裙着用 有無가 문제시 되는데 이것은 확실한 고증이 없어 단언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袍안에 입은 裙으로서 前·後代를 가리키는 어려울 것 같다. 以上으로 미루어 추측하건대

백제의 僧服은 고구려와 같은 袍를 입고 그 아래 裙을 입거나, 아니면 착용치 않거나 하였으며, 袈裟는 단일색이나 또는 貼相袈裟를 착용하지 않았나 한다.

四、新羅의 法衣

신라에서 불교가 公行하게 된 것은 二三代 法興王(A.D 五七二)時代이나 〔三國史記〕에(48) 의하면 그보다 이미 一〇〇여년 전인 十九代 訥祇王 때에 沙門墨胡子가 고구려에서 一善郡(善山)에 와 郡民 毛禮의 집안 窟



(圖 13) 日本興福寺 소장(8세기) 十大弟子立像 須菩提像 (袈裟史, 도판 35)

室에서 기거하였다고 하였다.

이것으로 보면 신라의 佛敎는 訥祇王 때에 전래된 것으로 볼수 있다.

그러나 法衣가 이때부터 신라에서 착용되었는지는 의문이며 <史記> 49에 法興王 때에 王이 佛敎를 일으키고져 함에 여러신하들이 말하기를 지 금 僧徒들이 童頭異服하고 의논이 기괴하여 常道가 아니라... 한 것으로 보아 머리를 깎고(童頭) 法衣(異服)을 정식으로 착용한 것은 法興王 시대의 일이거나 아니면 그보다 조금 전쯤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신라에서는 王이나 王妃가 직접 沙門이 되어 袈裟를 착용한 경우를 볼수 있다.

<三國遺事>原宗與法條에

「法興王이 절을 세워 冕旒를 사양하고 方袍를 입고 宮戚들을 데리고 寺隸로 만들어 그절에 主住하면서 몸소 弘化를 말아 하였다」 하였고

또한 <三國史記>新羅本紀 第四、眞興王條에는

「王이 유년에 즉위하여 一心으로 奉佛하다가 말년에 이르러 머리를 깎고 僧衣를 입고 중이 되어 自號를 法雲이라 하여 그 몸을 마쳤고, 王妃도 역시 따라서 比丘尼가 되어 永興寺에 住했다」고 하였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신라의 法衣는 王室佛敎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 자연히 華麗하게 변하였음을 알수 있는데, 그 하나의 좋은 예로는

<三國史記>에

「哀壯王七年에 佛寺의 새로운 창건을 禁하고 改修만을 허락하며 또 佛寺에서 金·銀·錦·繡를 사용하여 그릇이나 衣服을 만드는 것을 禁止한다」고 한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法令으로 禁止하였을 정도이며 그 以前에 法衣가 얼마나 지나 칠 정도로 화려하였는지를 추측해 알수 있는 일이다.

지금 傳해 지는 新羅袈裟로는 慈藏律師가 文殊菩薩로 부터 傳해 받았다는 釋迦如來의 가사와 慈藏律師의 가사가 慶南梁山 通度寺에 소장되어 있다.

1、釋迦如來袈裟

釋迦袈裟에 대하여

<通度寺舍利袈裟事蹟略錄>에는 50

「創建主 慈藏律師가 貞觀一二년(唐太宗의 연호 AD 六三八)에 佛法을 구하러 唐나라에 들어가 終南山 雲際寺 文殊菩薩像 앞에서 부지런히 정진하였더니 하루는 문수보살이 梵僧(인도의 승려)으로 化하여... 緋羅金點袈裟 한벌과 全身舍利 百杖과 佛頭骨과 指節과 纒珠와 경전등을 자장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本師 釋迦如來께서 親着하시던 袈裟와 眞身舍利와 佛頭骨등 부처님의 遺物인데... 그대에게 付囑하니 받들어 가지라... 하여 얼마후 慈藏이 袈裟와 기타 聖物들을 가지고 귀국하여 通度寺를 세워 사리와 가사를 봉안 했다」고 하였다.

또한

<三國遺事>塔像第四 前後所將舍利條에는

「善德王代 貞觀十七年 癸卯(AD 六四三)에 法藏法師가 唐나라에서 가져온 佛頭骨·佛牙·佛舍利와 부처님이 입으시던 緋羅金點袈裟 一領을 舍利는 셋으로 나누어 一分은 皇龍寺에, 一分은 太和塔에, 一分은 袈裟와 아울러 通度사 戒壇에 두었다」고 하였다.

以上에서 보면 慈藏이 文殊菩薩에게서 傳해 받았다는 釋迦의 袈裟는 緋羅金點袈裟로서 赤色 비단에 金點이 있는 袈裟임을 알수 있는데

지금 通度사에 소장된 가사는 黃色 비단에 金點이 있는 가사로서 문헌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制度的인 면에서 보더라도 그 形態가 釋迦當時의 印度袈裟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서 아마 慈藏이 본래 가져온 가사는 傳授과정에서 遺失되고 現存가사는 그 대신으로 중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것은 李穡이 지은 <梁州通度寺釋迦如來舍利記>의 51 舍利와 袈裟는 왜적의 침입이 있을때마다 약탈의 대상으로서 수난을 겪었다는 말을 보아도 알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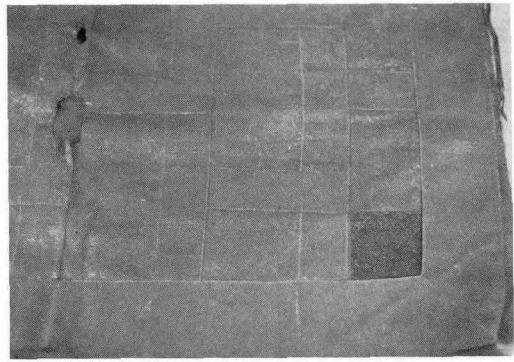
여하간 지금 通度사에 보관된 袈裟의 眞品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表 3) 실측

(단위 : cm)

釋迦如來袈裟(通度寺)	
袈裟크기	286×93
條數	25條 4長 1短
主幅크기	15×18
1長크기	11×18
1短크기	11×7
葉 넓이	4
襴 넓이	6.5
天·王크기	6
日·月	無
특징	黃羅金點袈裟

一短의 大袈裟(圖一四)로서 黃色 비단 바탕에 金絲를 넣어 짠 紋織으로 紋樣은 卍字樣이 아닌 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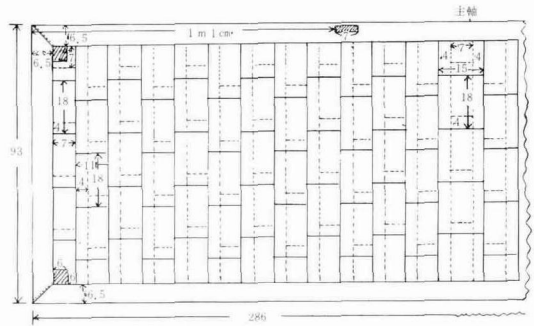
(圖 14) 석가여래 가사의 一部分(통도사소장) 조사일 : 1972. 2

통도사 戒壇에 부처님의 舍利와 袈裟가 있었던 것은 中外에 널리 알려져 印度僧 指空大師(AD?)(一三六三)가 수만리를 와서 戒壇을 참배한 뒤 부처님의 舍利와 袈裟를 친견할 때 얻을 수 있는 공덕을 높이 평가할 정도였다 하니 부처님의 袈裟가 장을 통하여 통도사 戒壇에 모셔졌던 것만은 확실한 것이다.

〈袈裟의 說明〉

석가여래가사의 크기는 二八六×九三cm에 二五條 四長

(表 4) 釋迦如來袈裟 實測圖



또한 가사 네 귀퉁이에는 紅色金點으로 된 花紋樣이 뚜렷이 나타나서 四方六cm의 綫이 부착되어 있는데 天·王의 繡는 없다. 그리고 袈裟 윗부분 緣(襴)에 黑紫色 비단片이 있는 것으로 보아 纓자가 있었던 것 같다.

2. 傳慈藏律師 袈裟

慈藏律師의 俗名은 金善宗이며 新羅의 眞骨蘇判茂林의 아들이다. 그가 佛家에 歸衣하여 入唐한 것은 善德女王 五年(AD 六三六)의 일이다.

그런데

〈三國遺事〉卷五 義解第四 慈藏定

律條에

「貞觀 一七年 癸卯(AD 六四三)에 본국의 善德王이 글을 올려 돌려 보내기를 청했다. 당나라 황제는 허락하고 그를 宮中으로 불러 명주 一領과 여러 종류의 비단 五〇端을 하사하였으며 東宮도 또한 비단 二〇〇端을 내리고 많은 禮物를 주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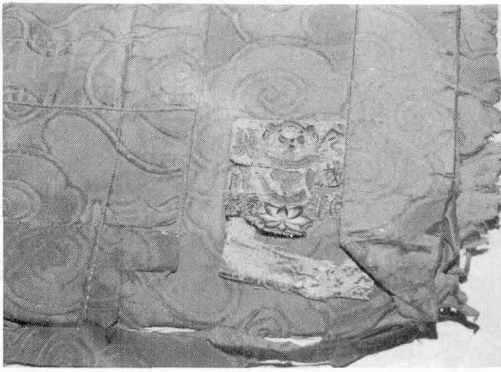
이것을 보면 法藏律師가 唐나라로 부터 가져온 비단이 어떠한 종류의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신라 袈裟에 中國비단이 쓰여진 것 예일 것이다. 또한 慈藏은 朝廷에 진의하여 唐의 文物制度를 따르게 하여 이후 우리나라의 조정의 의관이 中國制度를 따르게 되었는데 이것은 眞德王 二(六四八) 金春秋가 唐나라에 가서 衣服을 唐모습대로 하기를 청하여 唐太宗이 衣帶를 주어 比로소 중국의 衣冠을 쓰게 되는 때보다 시기적으로 五년정도 앞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부터 唐의 衣服制度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 僧侶의 法衣 또한 唐制를 따랐을 것으로 본다.

그것은 慈藏律師가 唐에서 돌아와 護國護法の 佛事를 일으키고 敎團 戒律을 확립하여 僧尼의 기강을 바로잡아 戒律을 지키게 하였는데 조정에서 法衣를 大國統으로 삼았다고 함으로 法衣는 戒律中에 먼저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신라의 敎團統制의 僧職으로는 國統(寺主)·大書省·小書省·大都唯那·都唯那娘⁵³⁾이 있는데 法衣를 사는 大國統이었으니 位置로 보아 法衣는 威儀를 갖춘 大袈裟이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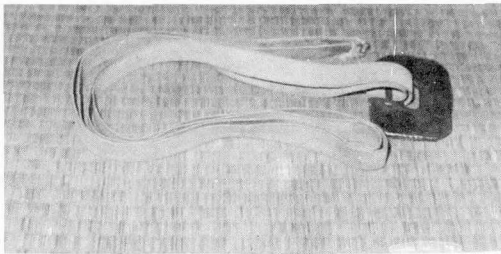
〈袈裟의 說明〉

現在 通度사에 소장된 가사는 慈藏律師가 王宮(善德女王時로 추정함)으로 부터 下賜받았다는 袈裟가 전해오고 있는데 이 가사는 黃色비단바탕에 雲紋이 시문되어 있다. 크기는 二四三×八四cm의 二五條四長一短의 大袈裟로서 僧伽梨(圖 一五)이다.

또한 袈裟 네귀퉁이에는 靑錦銀點천 五×五cm에 옴氣字를(圖 一六)



(圖 15) 傳慈藏律師袈裟一部分(通度사소장) 조사일 : 1975. 2.



(圖 17-1) 빛장장식



(圖 17-2) 빛장장식의 작

일 오래된 것이다. 作品⁵⁴⁾으로 생각되는데 高僧 肖像彫刻으로는 제 一八) 慶南 海印寺에 전해오고 있다.

華嚴宗의 祖師이었던 希朗祖師의 木造像이(圖

3, 希朗祖師 法服

傳慈藏律師袈裟實側圖 (表 六)

着裝하게끔 되어 있다(圖 一七一, 二)。

袈裟의 실측(表 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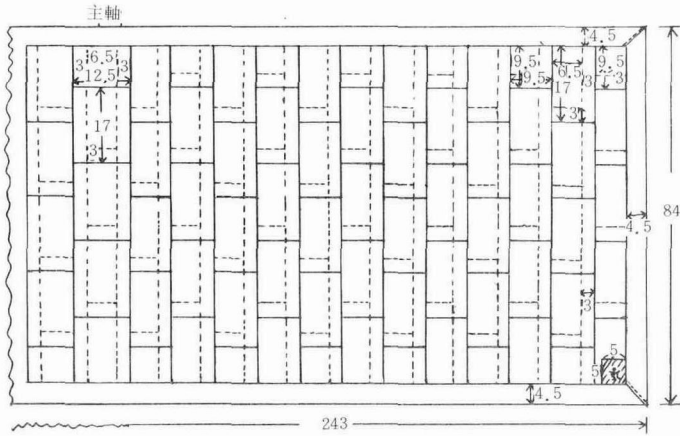
서 적극적인 宗教의 상징 즉 五濁(色·受·想·行·識)에서도 깨끗이 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袈裟는 年輪이 悠久한 탓으로 너무나 老朽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제까지 保存되었다는 것은 투철한 信仰心의 發露라 여겨져 敬嘆할 일이다 그리고 袈裟의 着裝은 纓子대신 銅製빛장으로

(表 5) 실측

(단위 : cm)

傳慈藏律師袈裟(通度寺)	
袈裟크기	243×84
條數	25條 4長 1短
主幅크기	12.5×17
1長크기	9.5×17
1短크기	9.5×9.5
葉넓이	3
襴넓이	4.5
옴字크기	5×5
日·月	無
특징	黃色雲紋袈裟

연꽃위에 올려놓은 모습으로 정교하게 繡를 놓았는데, 이 『옴』자는 일체의 萬法이 이 한자에 歸屬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으며 蓮華는 佛敎에



(表 6) 慈藏律師袈裟製圖



(圖 16) 「卍」字繡

이 木像은 直領交衽式 袍위에 偏袒右肩으로 大袈裟를 입고 있는데 現在 이 袈裟는 紅色바탕에 綠色으로 條葉을 한 紅綠貼相袈裟이며 袈裟의 안이 綠色인것으로 보아 袈裟임을 알 수 있다. 律에 大袈裟(大衣)는 複衣, 重衣, 혹은 重複衣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회

祖師는 眞聖女王 三년 (A D 八八九)에 탄생하여 一五세에 出家하였고 高麗 光宗 一七년(A D 九六六)에 入寂하였다. 俗傳에는 海印寺의 住持를 지냈다고도 한다. 스님은 화엄학의 大家로 고려 太祖를 도와 高麗建國에 공을 세운분인데, 寺傳에는 이 像을 회랑스님이 손수 만들었다고 전하나 高僧이 老後에 자신의 肖像을 직접 조각한 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로서 당시의 저명한 彫刻匠에 의해서 조각되지 않았나 推測된다.

新羅一代를 통하여 思想의 王座에 올라 旺盛한 勢力을 떨쳤던 불교는 그 餘勢를 몰아 신라의 뒤를 이어 繼承한 高麗에서도 능히 그 世력을 維持하고 發展시켜 思想界의 指導의 地位에 놓여 있었다. 時代가 변화하고 朝廷이 바뀌면 國家의 諸般文化思想이 變更되는 것이 常例인데, 高麗朝는 前朝의 佛敎의 思想生活을 그대로 繼承하였으므로 社會生活도 자연 新羅의 文物을 그대로 踏襲한 것이 많았다. 그러나 麗朝는 한편으로 宋文化의 영향을 받고 있었으므로 처음에는 新羅의 舊制를 그대로 쓰다가 차츰 새로운 文化를 形成하였다. 그러므로 복식은 唐制·宋制·中國化된 契丹制·元制 등의 各服飾이 우리 古來의 服飾위에 복합해서 56 영향을 주었고 특히 光宗朝(A D 九五〇)에

랑조사의 木像에서 처음으로 袈裟를 보는 셈이다. 그런데 이 木造像의 현재의 彩色에 대하여 文明大氏는 개질한 것이 아닐까 하며 원래의 彩色은 金色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필요로 하나 그때의 僧服형태에 변함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袈裟를 木造像 측면 왼쪽 어깨에서 아래로 보면 四長一短으로 된 大袈裟가 분명하며, 偏袒右肩으로 걸친 어깨에는 가사를 고정시키는 띠를 앞에서 매듭으로 묶었고 뒤에는 둥근고리에 장식적인 二重술이 달려있다. 또한 袍는 直領交衽이며 大袖口로서 흰색 바탕에 紅色점과 綠色점이 엇갈리면서 둥근점 무늬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僧侶들의 法服에 대하여서는 당나라 武后때 부터 直綴을 입기 시작 하였다고 하는데 57 이것은 僧侶의 短衣인 褊衫과 裙을 連結한 옷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長衫이라고 한다. 이것으로 보면 唐文物의 영향을 받은 新羅에 있어 회랑조사 木造像의 衣服도 袍의 형태인 長衫 위에 袈裟를 着用한 것으로 추측이 된다.

五、高麗時代의 法衣



(圖 18-1) (측면)



(圖 18) 希朗祖師木造像(앞면) 李康七(1972) 「韓國名人肖像大鑑」(探求堂, p.189)

이르러서는 百冠의 公服이 制定되었다. 또한 僧侶에 대해서도 종전과는 달리 僧科를 두어 禪宗의 法階는 大選·大德·大師·重大師·三重大師·禪師·大禪師로 분류하고, 教宗의 法階는 大選·大德·大師·重大師·三重大師·首座·僧統으로 분류하여, 禪宗은 禪師·大禪師, 教宗은 首座·僧統의 法階를 가진 者중에서 王師와 國師로 받들고⁵⁹⁾ 이 法階의 區別에 따라 服飾의 차별을 두었다.

그대의 制度에 대하여 《高麗圖經》에 보면

「國師는 中國의 僧職 網維가 있음과 같으며 그 上一等은 王師라 이르는데, 王師와 國師는 出水衲袈裟·長袖偏衫·金跋庶下·紫裳·烏革·鈴履를 하고

三重大師는 律師의 종류로서 聰慧, 辯博한 사람을 가려서 하였는데, 紫黃貼相福田袈裟·長袖偏衫·紫裳을 입고,

大德은 短袖偏衫·壞色挂衣⁶⁰⁾五條·黃裳을 입으며

沙彌比丘는 貼相이 없는 壞色布衣을 입고 계율이 높아지면 紫服으로 바꾸고 次弟로 닦아 올라가 衲衣을 입는데

高麗僧은 磨衲⁶¹⁾을 最高로 여긴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보면

고려의 僧服은 偏衫·裳·袈裟로서 일음을 갖추었는데, 大德 以上만 이 袈裟를 입었음을 알 수 있다.

國師의 出水衲袈裟의 意味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筆者의 의견으로는 禪僧들이 구름이나 물과 같이 정처없이 행각한다는 뜻에서 온 雲水 즉 雲衲의 뜻도 있고, 또한 袈裟를 出世服이라고 하므로 出世와 雲水의 뜻에서 出水衲袈裟라고 하지 않았나 한다. 만일 出水를 물말음을 트는 의미로 본다면⁶⁰⁾ 모든 가사에 通門이 있으므로 적합치 않은 듯하다. (가사 功德經에 通門이 없으면 眼盲報를 받는다고 하였음)

그리고 三重大師의 紫黃貼相福田袈裟란 紫色 바탕에 黃色으로 條葉을 두른 袈裟일 것으로 추측하며

大德의 壞色挂衣五條는 壞色으로 된 五條袈裟가 아닌가 한다. 이것은

唐의 則天武后 때 부터 五條에 끈을 달아 간단히 使用하였다 고 하는데 遺傳하는 袈裟나 佛畫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다만 현재 曹溪宗 스님들 이 이와 같은 五條를 着用하고 있다.

또한 沙彌는 貼相이 없는 壞色布衣을 입는다고 하였는데 條數가 없는 縵衣로 보아야 하며, 이 縵衣를 日本의 영향을 받아 日制통치하 때 부터 입었다는 說은 잘못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褊衫과 裳의 色으로도 法階의 高下를 가렸던 것으로 紫色의 裳은 三重大師以上만이 입었던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磨納袈裟는 紫色으로 된 비단 袈裟인데 唐나라 神龍 一年(AD 705)에 中宗이 六祖 慧能에게 준 袈裟가 바로 이 磨納袈裟이다. 아마 모든 승려가 이 法脈을 받고자 하는 뜻에서 高麗의 승려들이 磨納을 最高로 여기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런데 그 후 僧服이 法階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은 <高麗史> 卷八十五에 보면

「顯宗三年(一〇二二)에 教曰, 요즈음보니 沙門의 衣服이 점점 奢侈가 盛行하여 참람하니 有司에 분부하여 風俗에 맞는 옷 제도로 정하게 하



(圖 19) 大覺國師(1055~1101) 肖像畫(仙岩寺 소장)



(圖 21) 覺眞國師(1270~1355) 肖像畫(후녀의 이모본) 李康七(1972), 「韓國名人肖像大鑑」



(圖 20) 慈覺國師 肖像畫(1292~1319사이에 國師를 함)(松廣寺 소장)

였다」하니 이때 出家修行 沙門의 衣服이 얼마나 奢侈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해 禁令이 발표되니 그것은 顯宗十八年(一〇二七) ② 八月에 僧服으로 白衫·鞵·頭袴·綾羅勒皂施欄衫·皮鞋·彩冒·笠子·冠纓의 着用을 禁하는 것이다. 이것은 當時의 僧服으로 着用이 되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나 禁令後의 현존 遺物은 볼 수가 없고 다만 僧侶 肖像畫(圖一九)、(圖二〇)、(圖二一)에서 長衫속에 白衫^㉓이나, 또는 皂線이나 綠色線을 두른 欄衫을 高麗以後 朝鮮王朝까지 계속 着用하고 있음을 볼 때 이 禁令은 實行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이 白衫에 대하여 高麗末 李朝初에 建立된 松廣寺 一六國師殿의 慈覺國師(一二九二~一三一九年) 사이에 國師를 지낸 肖像畫에서 보면 白色長衫을 着用하고 있어, 白衫을 長衫 속에 着用하는 것으로 보아 합치 또는 白色長衫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의문이 생긴다.

그리고 高麗末에는 三重大師以上 國師級에서도 貼相袈裟가 着用되었음을 肖像畫을 통하여 알 수 있다.

現在 遺存되는 高麗의 法衣로는 大覺國師袈裟와 普照國師 모조품 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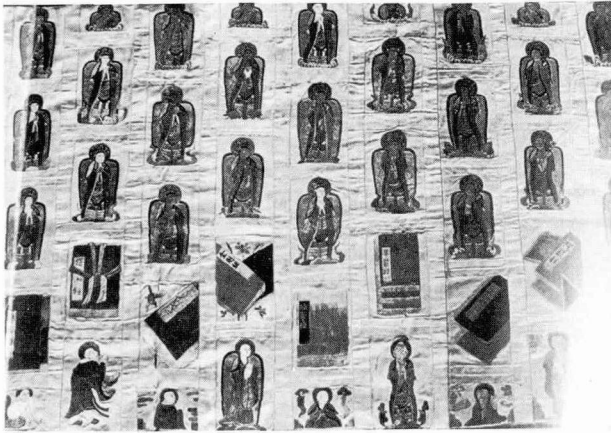
圖 22) 大覺國師袈裟一部分(仙岩寺 소장) 조사일 : 1979. 8.

阿彌陀佛 度世間苦惱佛 須彌相佛 檀樹神通佛 雲自在佛 雲自在王佛 壞怖畏佛 無量壽佛 不動尊佛 金剛堅固佛 彌勒佛 毘盧遮那佛 釋迦如來 盧舍那佛 藥師佛 熾盛光佛 空王佛 常林佛 常相佛 常滅佛 虛空住佛 獅子音佛 獅子相佛 須彌頂佛 阿閼佛	觀世音菩薩 寶相菩薩 喜捨菩薩 香自在王菩薩 進趣依菩薩 妙香菩薩 慈悲菩薩 慧相菩薩 離戲菩薩 金剛王菩薩 法相菩薩 文殊菩薩 彌勒菩薩 金剛藏菩薩 三足烏 日 消災菩薩 虛空進菩薩 不退輪菩薩 善明菩薩 寂照菩薩 無憂慧菩薩 大樂說菩薩 無畏自在菩薩 高德菩薩 月空菩薩	大勢至菩薩 大威德菩薩 觀喜菩薩 香花自在菩薩 寶積菩薩 妙相菩薩 喜見菩薩 無憂菩薩 遍耀菩薩 除障得菩薩 法林菩薩 普賢菩薩 竭羅菩薩 虛空藏菩薩 托기 息災菩薩 虛空慧菩薩 不退變菩薩 善慧菩薩 寂謹菩薩 無憂樂菩薩 大辯說菩薩 無憂空菩薩 高王見菩薩 月花菩薩	阿彌陀經 大悲多羅尼 隨求多羅尼 闍耶多尊子 伽耶尊子 羅睺羅尊子 龍樹大士 馬鳴大王 協尊子 弗駄難提尊子 彌迦迦尊子 毘多尊子 阿難尊子 迦葉尊子 和修尊子 提多迦尊子 婆須密尊子 伏駄密多尊子 富那耶尊子 摩羅尊子 難提尊子 鳩摩羅尊子 槃頭尊子 難提尊子 崙勒那尊子 斯多尊子
---	--	--	---

衫이 있다.

1. 大覺國師 袈裟(一〇五五~一一〇一)

大覺國師는 고려 文宗王의 第四子니 姓은 王氏, 名은 照, 字는 義天 王은 號를 祐世라 賜하고 僧統의 職을 授하였다. 國師는 宣宗二年(一〇



(231) 19세기 袈裟一部分(許東華氏소장)
 「韓國의 刺繡」 p. 216.

八五)에 渡宋하여 高德碩學을 방문하고 法要를 論議하였다.

新羅佛敎를 계승한 고려조의 불교는 대각국사가 出世함으로써 회기적인 新佛敎를 創設하여 天台宗을 新創함으로서 禪敎合一의 思想이 全佛敎界를 風靡하게 되었다. 그런데

大覺國師의 袈裟가 全南昇州 仙岩寺에 전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繡袈裟(圖 22)이다.

袈裟 뒷면 墨書銘에

「高麗宣宗大王 賜于大覺國師 北宋元祐二年丁卯」라 하였는데, 이것을 보면 시기 一〇八七년에 고려 宣宗大王이 大覺國師에게 下賜한 袈裟가 된다.

〈袈裟의 說明〉

袈裟의 크기는 二二

七×六〇cm에 二五條

四長一短의 大袈裟로

서 大紅色 비단 바탕

의 長方形의 長·短

에 黃色실로 一段 즉

上段에는 佛의 名號,

二段과 三段에는 菩

薩, 四段에는 佛經,

五段 즉 下段에는 尊

子의 名號를 不繡로

정교하고 세밀하게 繡

놓았다.

佛菩薩位置에 代하

여(佛說袈裟功德經) 64

에

「上品上位품은 三世

如來位를 成造하고, 上品中位품은 菩薩位, 上品下位품은 緣각위를 成造하리」고 하였다.

이것으로 보면 이 袈裟는 上品의 袈裟이므로 이것에 따라 배치한 것으로 본다.

〈釋門儀範 大禮懺禮〉 65에

여러 佛, 보살, 經, 尊자들의 특징을 나열하고 있다.

佛이란 梵語의 Buddha(佛陀)의 약칭이며 또한 如來라고도 한다. 즉 覺者라고 意譯하며 진리를 깨달은 사람, 진리에 도달한 사람이란 뜻이다.

여기에서 袈裟의 맨처음 새겨진 阿彌陀佛은 無量壽如來라고도 하는데 이 광명을 받는자는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나날 수 있다고 한다 66. 그리고

淸淨法身은 毘盧遮那佛

圓滿報身 盧舍那佛

千百億化身 釋迦牟尼佛인데 부처는 석가모니 한분만이 아니며 經

에 七佛, 三十五佛, 五十三佛, 千佛, 一萬三千佛등의 이름이 보이고 있

다.

菩薩이란 菩提薩埵(Bodhi-Sattva)의 약칭인데 大道心衆生, 道衆生,

大覺有情, 開士大士, 始士, 高士등 여러가지로 번역한다. 보살은 上求

菩提下化衆生하는 것이며, 보살이 되려면 六波羅密을 實行해야 한다.

그런데 보살의 像을 표현할 때는 부처의 出家相과는 달리 服飾에 있어서

도 장엄구를 지니고 있으며, 부처의 淨土에서 부처를 모시는 무리이므

로 天界의 복식을 하며 실제로 표현할 때는 지상의 貴人 특히 여성의

像 67은로 표현하고 있다(許東華氏(圖 二二) 소장 袈裟에 나타나고 있음)

또한

관음보살과 勢至보살은 아미타불의 補處보살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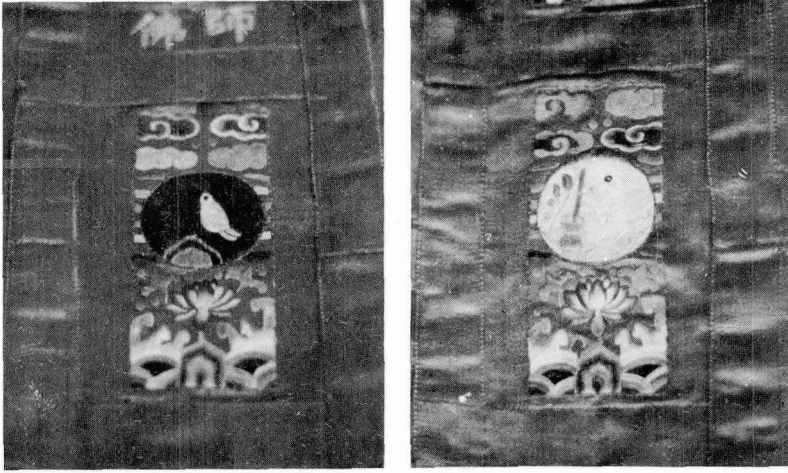
日光보살과 月光보살은 약사여래의 補處보살이며,

彌勒보살은 석가여래의 補處보살이다. 그런데 보살의 數는 무량무수하

여 인도에서의 비유에 의하면 이 세상의 보살의 수는 개지스개의 모래

만큼 많다고 하였다.

佛經은 부처님의 四十九年 동안 說하신 常說法門이다.
羅漢像은 곧 阿羅漢인데 소승불교의 수행자 가운데서 가장 높은 지위로서 온갖 번뇌를 끊고 苦·集·滅·道의 四諦의 이치를 밝게 얻어서 세상사람들의 공양을 받을 만한 공덕을 갖춘 聖者를 말하는데, 대개 수행의 像으로 표현하며 그 종류는 十六羅漢、五百羅漢、十大弟子⁶⁸ 등이 있다.



(圖 24) 大覺國師袈裟 日·月(三足烏와 토끼)

袈裟佛事功德에 대

하여 <大藏經隨字函十卷第八章>⁶⁹에

「上品衣를 造成하면 혹 인간으로 태어나나 제왕의 위에 오르게 되고, 下品衣를 造成하면 혹 인간으로 태어나 되 일인지하 만인 지상이 된다」고 하였으며,

또한 「袈裟는 如來가 尊生을 攝化하는 威儀이며 보살이 萬行을 勤修하는 法服이므로 가사를 조성하여 발원하는 자는 천재설 소하고, 백복이 운홍하며 몸에 입거나 걸어 모시는 자는 邪神이 침범치 못하여 항상

현성이 옹호한다」고 하였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大覺國師의 袈裟는 宮中에서 큰 발원을 세우고 한편으로는 國師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만든 最高의 正성을 쏟은 袈裟일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大覺國師袈裟와 比較가 되는 十八世紀前期의 것으로 보여지는 許東華氏⁷⁰ 소장품의 繡袈裟 一領이 있다.

이 袈裟는 크기 二四〇×六三 cm 에 二十五條四長一短의 大袈裟로서 白色공단 바탕에 長方形의 長·短에 여러가지 아름다운 比단실로 一

段씩 上段에는 佛을 座像이나 立像으로 수놓았고, 二段과 三段에는 菩薩의 立像, 四段에는 經典名, 五段씩 下段에는 尊子를 座像과 立像으로 나란히 배열하면서 정교하게 繡를 놓았는데

특히 長方形의 短에는 座像, 長에는 立像을 수놓고 中央線의 主軸을 中心으로 하여 立像들의 몸을 左右에서 中央을 향하게 하여 대칭으로 構圖를 잡아 안정감을 주었다.

大覺國師袈裟와 이 袈裟는 똑같은 法式에 따라 제작되었는데 다른 점은 前者는 文字로, 後者는 그림으로 나열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袈裟들이 經典名으로 인하여 같다는 事實을 알게 되었다.

이 袈裟는 功德중에 袈裟공덕이 제일이라는 점을 미루어 後人들이 大覺國師의 袈裟를 친견하고 본떠서 큰 願力을 세워 지성스럽게 만들어서 간직하고 예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나 한다.

다음은

大覺國師의 袈裟에 있어 天·王과 日·月繡와 가사끈(纓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袈裟 네귀퉁이에 四方 二 cm 의 青色비단바탕에 天·王이 홍색실로 繡 놓여 있으며 袈裟의 中央線인 主幅에서 왼쪽으로 셋장 二條 지난 二段과 三段에 長方形 四×九·五 cm 크기의 紅色비단 바탕에 日·月을 표시하는 三足烏와 토끼(圖 二四), 그리고 그 주위를 여러색실로 雲紋과 피

봉우리를 수놓은 것이 위아래에 한쌍 달려 있다.

해를 三足鳥로 달을 토끼(月宮)로 상징한 것은 일찌기 三國時代의 구려 벽화에서도 보이는데 ⑦ 여기서는 日·月이 밝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佛法은 無明을 비쳐주는 밝은 法이기 때문인 듯 하다.

그리고 纓子は 初期의 가사에서 보이듯이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면보다 裝飾的인 면에 더 치중한 것 같다(表七)

(表 7)

大覺國師袈裟의 纓子位置와 치수

번호	폭(cm)	길이(cm)	색과 천
①	4	102	紫色명주
②	8	100	紅色비단
③	8	99	靑色비단
④	7.7	100	靑色비단
⑤	7.8	100	紅色비단
⑥	4	100	紫色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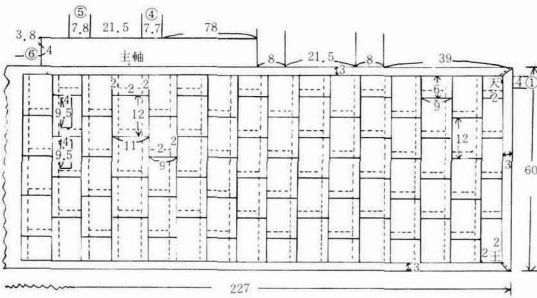
袈裟의 실측(表八)
2、普照國師 長衫(一一五八) 一
二一〇)

全南 순천 松廣寺에는 고려 普照國師의 모조품 長衫이 보존되어 있다. 寺中 翠峯老師의 말에 의하면 松廣寺의 大藏展內가 一九五一年 共匪들에 의해 火災를 입기전까지만 해도 당시 普照國師의 長衫은 유리장 속에 걸어 두고, 비단으로 된 袈裟는 많이 남아서 함속에 넣어 두었는데 불길에 사라졌다 한다 ⑫.

그러나 筆者가 性空스님께 들은 바로는 袈裟는 현재 모조품도 없고, 長衫에 대해서는 모조국사 長衫이 불타기전에 松廣寺에 제신 綺山스님이 一九四六년경에 어느 보살을 시켜서 모조국사 장삼과 똑같이 만들어 입다가 여순반란때 화재로 모조국사 장삼이 불타 대신 보관했다고 하였다.

이것은 口傳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로서 근본적으로 남아있는 유물과 문헌이 없어 단정을 내리기에는 부족하나, 그런대로 신빙성은 있는 듯

(表 9) 大覺國師袈裟 製圖



(表 8) 袈裟의 실측

(단위 : cm)

大覺國師袈裟(仙岩寺)	
袈裟크기	227×60
條數	25·4·1·1
主幅크기	11×12
1長크기	9×12
1短크기	9×6
葉넓이	2
欄넓이	3
天·王크기	2×2
日·月크기	4×9.5
특징	佛名號繡袈裟

하다.

普照國師의 俗姓은 鄭氏, 黃海道 瑞興人이며 牧牛子는 그의 自號이다. 八歲에 出家하여 明宗一二年 二五歲에 僧科에 합격했다. 熙宗은 知訥의 名望을 듣고 禪門을 命名하여 曹溪 山 修禪社라 칭하고 滿繡의 袈裟를 주어 褒賞했으며, 五三歲에 示寂하니 회종은 佛日普照國師라 贈諡하였다. ⑬.

口傳에 의하면 熙宗이 하사한 滿繡袈裟는 연하늘 색의 비단바탕에 삼라만상을 繡놓은 二五條四長一短 홀가사였다.

이것으로 보아 高麗때는 國師들에게 王이 繡袈裟를 하사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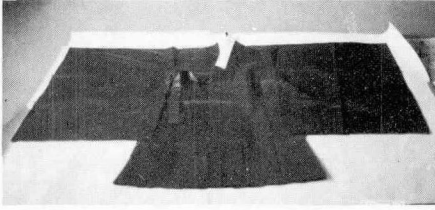
그리고 普照國師의 長衫의 색은 겨울용은 푸르스름한색 즉 하늘색이고, 여름용은 연미색(삼베색)에 동그라한 무늬가 있으며 옷감은 비단과 紗가 쓰여졌던 것 같다고 한다.

모조품인 綺山스님의 長衫(圖二五)은 겨울용으로 紅色 양단에 홀장삼이며 것에는 동정이 달려 있다. 현재의 실측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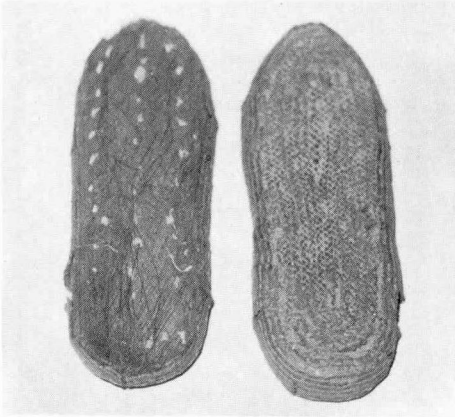
치수에서 옷의 화장은 보조국사 장삼이 좀 더 길었다고 한다.

또한 松廣寺에는 普照國師가 신으시던 沐浴鞋(圖 二六)가 소장되어 있는데 이것은 印度의 종려나무 껍질로 만든 신의 바닥인데 목욕할 때 신던 것으로 습기가 빨리 마르므로 위생적이라고 한다. 고려에서 印度의 신을 신은 예로서 귀중한 자료이다. 신의 길이 二六·五cm, 두께는 二·五cm, 신폭은 中間이 七·五cm이다.

모조품인 長衫의 치수(表 一〇)와 제도(表 一一)는 다음과 같다.



(圖 25) 普照國師長衫모조품(松廣寺 소장)
조사일 : 1979.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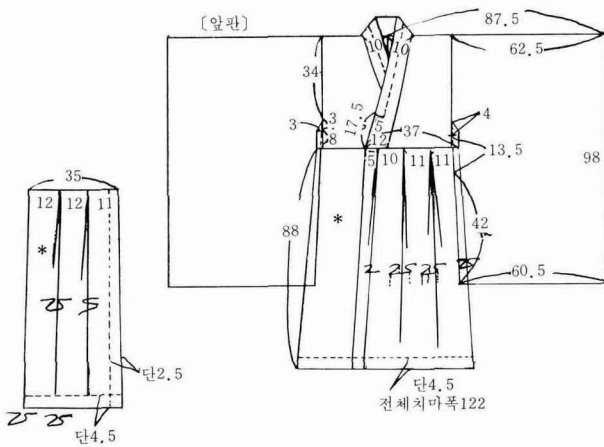
(圖 26) 普照國師沐浴鞋

(表 10)

普照國師長衫모조품

명 칭	치수(cm)
총길이	133
화 장	87.5
등길이	45
소매통	98
뒷 품	50
진 동	34
뒷고래	20
깃넓이	12
동정나비	5
겉고름	59×4 40.5×4
안고름	36×2.5
치마길이	88
치마주름	10개

(表 11) 普照國師長衫實測圖(앞판)



- 43 禹貞相·金煥泰: 『韓國佛敎史』 P, 二九 서울 信興出版社(一九七六)
- 44 이운창: 『한국복식의 역사』 1고대편 P, 六一,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一九七八)
- 45 泰弘變: 『韓國의 佛像』 P, 二〇四 서울 一志社(一九七六)
- 46 黃壽永: 『韓國美術全集』 佛像 P, 五七, 서울 동화출판공사(一九七四)
- 47 世界美術大界: 『中國美術Ⅱ』 P, 三七, 九二, 九六, 東京講談社(一九六八)
- 48 三國史記 券四 新羅本記 法興王條 初訥祗王時 沙門墨胡子自高句麗至一善郡 郡人毛禮於家中作窟室安置 於時梁遣使賜衣著香物 羣臣不知其……
- 49 前揭書
- 50 韓國佛敎研究院: 『韓國의 寺刹, 四、通度寺』 P, 三二 서울 一志社(一九七四)
- 51 前揭書 P, 二二三
- 52 『燃黎室記述』 別輯 一三券
- 53 禹貞相·金煥泰: 『韓國佛敎史』 P, 四七 서울 信興出版社(一九七六)
- 54 文明大: 『海印寺木造希郎祖師眞影(肖像彫刻)像의 考察』, 考古美術 韓國美術史學會(一九七八)
- 55 石宙善: 『韓國服飾史』 P, 一七六~一七九 서울 寶晉齋(一九七一)
- 56 金東旭: 『韓國服飾史研究』 P, 三六 서울 亞細亞文化社(一九七三)
- 57 禹貞相·金煥泰: 『韓國佛敎史』 P, 一二三
- 58 윤희용하: 『불교사전』 P, 六五
- 59 前揭書 P, 一九六
- 60 愼蘭淑: 『우리나라 袈裟에 對한 연구』 P, 五九, 이화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一九七八)
- 61 前揭書 P, 七六
- 62 高麗史 券八五
- 63 愼蘭淑 『우리나라 袈裟에 대한 연구』 P, 六〇
- 64 金東旭: 『佛心과 修行功德』 P, 四七二, 서울 경인출판사(一九七二)
- 65 安震湖: 『釋門儀範』 P, 一三~三八, 서울法輪社(一九七〇)
- 66 泰弘變: 『韓國의 佛像』 P, 三七~三八, 서울 一志社(一九七六)
- 67 前揭書 P, 四二~五一

68

(註 六八)

〈如來上足 十大弟子〉

頭陀第一	迦葉尊子
多聞	阿難
知慧	舍利佛
解空	須菩提
法門	富樓那
神通	目犍連
天眼	阿那律
論議第	迦旃延
密行	羅睺羅
持戒	優婆夷

69 佛心과 修行功德 P, 四七三

70 許東華: 『韓國의 刺繡』 P, 二二六 서울 三省出版社(一九七八)

71 繡林苑, 『李朝의 刺繡』 P, 八一

72 韓國佛敎研究院: 『松廣寺 한국 의 사찰』 P, 四六, 서울 一志社(一九七五)

73 玄相允: 『朝鮮思想史』 P, 六九, 亞細亞研究, 고려대학교(一九六五)

世宗大學家政學科教授